



**2022년 / 6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왕기석 이사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공연 안내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님이 6월 8일, 15일, 22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을 공연합니다. 2019년 춘향가와 흥부가를 시작으로 2020년 심청가, 2021년 수궁가에 이어 올해에는 적벽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사랑한 죄만 있던 여인인가? 냉혈의 여간첩인가 - 1950. 6. 15

1920년 지지리도 못사는 집안의 딸이어서 하시라도 빨리 입 하나 떨어져야 했던 사연으로 11살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여성이 있다. 신랑은 15살이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남편은 철도 없고 경우도 없었다. 시집간 지 4년 만에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인 독신녀의 수양딸이 되어 성장한다.

이화여전을 다니면서는 시인 모윤숙 등과 친분을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날 모윤숙은 그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한다. 경성제국대학 법대생 이강국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함흥 감옥 면회실에서 이뤄졌다. 이강국은 원산 총파업 지원 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국은 유부남이었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버렸기에 둘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해방될 무렵 그 여성은 세브란스 병원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병원에 폐렴에 걸린 이강국이 입원하면서 둘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강국의 본처는 세상을 떠난 뒤였고 둘은 동거에 들어갔지만 그 기간은 짧았다. 이강국이 북으로 간 후 무소식이었던 것이다.

이후 그 여성은 사교 클럽에서 만난 미군 24사단 헌병대장 베어드의 구애를 받고 동거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았다. 이후 이강국이 재차 남한에 내려와 활동하다가 체포령이 떨어졌을 때 미군 전용차에 숨겨 검문을 피한 후 월북시킨 것을 필두로, 이강국의 연락원을 여러 차례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고, 사형수였던 남로당 이중업을 빼내 북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AP 통신은 비밀 해제된 문서 가운데 이강국이 CIA의 협조자로 기록된 문서를 세상에 공개한다. 실제로 이강국이 '미제의 간첩'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베어드 역시 여성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 여성을 통해 일종의 역공작을 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 여성의 아들 김원일은 미국에서 목사 겸 교수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는 기밀사항에 접근할 만큼 고위 간부가 아니었으며 어머니의 죽음은 모종의 정치적 커넥션이라고 말했다. (usatoday 2008. 08. 17 인터뷰)

그 여성은 아무런 이념도, 정치적 동기도 없었고 그렇게 만든 것은 오로지 사랑이었다는 증언은 재판과정에서 모윤숙이 보인 변호나 그의 후배였던 수필가 전숙희(국제펜클럽 前 한국본부장) 증언 등을 비롯해 차고 넘친다. 사랑에 목숨을 걸었을 뿐 이념 따위는 몰랐던 것으로 모두가 증언하는 한 여자가 1950년 6월 15일 죽음의 선고를 받고 한국전쟁 직후 총살당한다. 그 여성은 살아 김수임란 이름으로 불리다 간첩으로 죽었다.



김수임이 1930년대 말 세브란스 병원 근무 당시 치과과장 부스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